
“부주의와 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2)

WHO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350만여명의 지구촌 사람들이 질병이 아닌 불의의 사고, 폭력 등으로 인해 사망한다. 그 비율은 요즘 건강상의 큰 문제인 성인병의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선진국보다도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위해 이 “사고”의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WHO는 올해 보건의 날 주제를 “부상”으로 선정하고 이의 예방을 위해 나섰다. 본 내용은 WHO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앞으로 약 4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자전거 운전자의 대부분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 헬멧을 착용한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는 거의 보호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가장 흔하게 입는 부상은 찰과상, 두개골 골절, 뇌진탕, 두개골내 부상이며 이러한 부상은, 머리를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하도록 적절히 설계된 헬멧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인 자동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부상과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자전거는 스포츠나 신체활동

의 수단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교통수단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망 중에 적어도 75% 이상이 두부부상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6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에서 가장 위험이 크며 헬멧을 착용할 경우 두부와 뇌 부상의 75%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이 1992년 중반 당시 미국내 25개 주에 있었지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 주는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자전거 운전자는 보호 헬멧을 착용하지 않

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강제적인 헬멧착용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두부 부상을 감소시킬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헬멧의 가격과 설계라는, 해결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반대자들은 헬멧이 자전거 운전을 “불편하게 하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지지자들은, 헬멧 착용은 안전과 위험 사이의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호주에서는 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날 자전거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일년 후, 모나쉬 대학 사고 연구 센터에 따르면 두부 부상으로 인한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 또는 입원이 약 40% 감소했다. 헬멧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어린이 안전

미국에서 부상은 어린이 사망의 가장 많은 원인이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화상, 익사, 중독, 총기와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은 모든 소아 질병에 의한 사망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이 엄연한 사실 때문에, 1988년 국립 어린이 안전 캠페인(National Safe Kids Campaign)이 설립되었다. 공적, 사적인 후원을 받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 단체이



자전거 운전자들의 헬멧 착용은 안전과 위험 사이의 더 나은 선택이다.

며, 현재 140개 단체로 구성되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최근 집계에 따르면 43개 주와 워싱턴에서 활동 중이다.

어린이 안전 캠페인(Safe Kids)의 주요 목표는 어린이, 부모, 선생님들에게 안전수단으로서의 헬멧 착용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 자전거에 의해 야기되는 부상과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헬멧 계획의 담당자인 Dr. William Kamela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는 어린이가 1%에서 5%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동일한 계획의 결과가 훨씬 좋아서, 가정아동부(Ministry of Family and Children's Affairs)의 Mr. Per Nygaard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의 약 60%가 헬멧을 착용한다고 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자전거는 오라 이 아닌 노동이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자전거는 레크레이션이 아닌 교통수단이며, 많은 경우 출퇴근의 1차 수단이다. 일례로 중국에서 약 100만, 인도에서 약 30만 명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이다.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 기술 연구소의 Prpf. Dinesh Mohan은 이렇게 말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전거의 가격이 30에서 50달러 정도이므로 적당한 헬멧의 가격은 1에서 3달러 정도인데, 이는 이런 헬멧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한 가격이다.

그에 따르면, 가격뿐 아니라 설계도 문제인데 열대지방 자전거 운전자에게 맞는 헬멧이 전혀 없다고 한다.

헬멧 강제 착용에 대한 가장 큰 반대세력은 코펜하겐에 본부를 두고 15개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유럽 사이클 연맹이다.

이 연맹은 강제규정보다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들의 더 나은 운전자세를 통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안전한 하부구조를 만드는” 캠페인을 선호한다.

이 연맹은 “적정히 설계된 헬멧은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과 부상을 약간 줄일 수 있지만, 그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이차적인 것이며 자주 과장된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의 부상예방부장인 Dr. Claude Rom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명백히, 헬멧의 사용은 안전을 위한 한 방법

이다. 이는 또한, 다치기 쉬운 머리를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독의 양상이 바뀌어간다

선진국에서의 대부분의 중독은 우연한 것이며 대부분의 희생자는 어린이들이고, 다른 화학물질보다 독성이 약한 가정용 제품이 주요 중독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실시한 몇몇 국립 중독 센터들의 사례보고 분석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아직 어린이에게 위험성이 높지만, 성인이 자살을 목적으로 농약이나 비슷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먹는 음독 보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남녀를 합해서, 중독은 부상, 중독, 폭력으로 인한 사망 가운데 약 7%를 차지한다. 중독은 모든 연령에서 다 생길 수 있지만, 어린이 특히 호기심이 많아서 손에 닿는 대로 입에 집어넣는 걸음마 어린이가 가장 위험이 크다. 세계보건기구의 화학물질 안전 프로그램의 의학 담당자인 Dr. Jenny Pronczuk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소위 ‘사고에 의한 중독’은 100%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천되는 주요 방법중에 이러한 화학물질을 어린이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제초제와 같은 위험한 물질을 음료수 병이나 눈에 띄는 화려한 용기에 담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은 항상 관찰되어야 하며, 부모는 가정

용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중독의 증가는 가정과 직장에서 화학물질, 특히 세제제, 표백제, 약물, 용제, 페인트, 그리고 농약 등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화학물질은 식품을 증산하고 보존하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만일 잘못 운반, 저장, 사용될 경우 인간을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은 도시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언한다.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가정에 가정용, 의료용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은 증가하며, 그에 따라 중독의 위험도 커진다.”

선진국의 이러한 양상에 대한 실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물질인 약물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5세 이하의 중독 치료를 받은 어린이 1,000명중 37% 만이 가정용, 정원용 화학물질을 먹은 데 비해, 57%는 향 우유제, 진정제, 아스피린, 파라세타몰 등의 약물을 먹었다.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양상에 대한 실례를 보면, 스리랑카에서는 1991년 보고된 총 344명의 환자 중에서, 60%는 자살 기도였고 33%는 사고에 의한 중독이었다. 이중 40%는 농약을 마신 경우였다. 산업용 화학물질은 19%였고 약물은 16.7%였

**어린이들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동시에
눈에 띄는 용기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다. 또한, 약 60%는 19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이었다.

아시아 공중보건관련 공무원(Asian public health officials)들의 보고에 의하면, 쌀에 첨가되는 염료는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등유는 어린이가 먹을 경우 발열과 호흡기 감염을 유발한다. 식물 추출액도 농축된 것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여성 440건, 남성 360건이 보고되었다. 필리핀에서는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그 숫자가 각각 310, 120 이었다.

대조적으로, 일본 중독센터에는 의도적인 중독이 단 52건—즉 전체 중독 26,168건의 0.2%—만이 보고되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최근 10년간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몇몇 국가들의 사고로 인한 중독 사망은 적어도 2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 수치는 일반적인 보고율 저하를 감안할 때 축소된 수치라고 한다. <계속> ㉞